

썸바귀야!

단 맛 도는 세상에
귀히 알아주는 이 없어도
손맛 좋은 아낙의 섬섬한 손끝 아래
쫄쫄한 봄을 돋우는 심성 좋은 너!

한 송이 노랑꽃은 맘디 맘아
시린 햇빛 아래
먼 곳에서 보아도 환한 미소 지으니
널 귀여워 할 밖에.

오늘도 턱 괴고 앉아
바람 친구 벗 삼아 가녀린 손짓 하니
아기벌도 함께 놀자
네 품속에 안기는구나.

14기 호 순복